

# 천주교 부산교구 성당건축의 양식과 전례(典禮)공간 변화경향 연구( I )

- 19세기 말에서 1962년 사이에 건립된 부산(釜山)교구 5개 주요 성당건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Style & Liturgical Space of Catholic Churches in Busan Diocese( I )

- Focus on Five Catholic churches in Busan diocese constructed between the end of 19th century and 1962 -

Author 권태일 Kweon, Tae-Il / 정희원,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Abstract**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The form and inner space for the religious ceremony; *liturgical space*, of Catholic churches in Busan diocese have been changed as various styles by several outer and inner factors. The changing of historical, social, and religious environment, such as Opening Harbor, Japanese Occupation, Korean War & Rehabilitation Period, and *Vatican II* are generally regarded as main outer factors, and the locality that lay behind the flux of those events is considered as the main inner factor. The former has usually operated as a momentum for showing general trend of Catholic church, while the latter has made local singularity expressed as unusual style and somewhat modified liturgical space compared with its contemporary churches. In the context, this paper attempt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style and liturgical space of Catholic churches in Busan diocese focused on revealing local singularity with main five churches, Bumil Church, Samrangjin Church, Milyang Church, Jungang Church, and Dongrae Church, constructed between the end of 19th century and 1962.

**Keywords** 부산교구, 성당건축, 양식, 전례공간, 변화, 지역성  
Busan diocese, Catholic church, Style, Liturgical Space, Transformation, Localit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천주교 부산교구는 1957년이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정식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교구의 성당건축은 개화기인 1893년에 초량성당(현 범일성당)이 최초로 건립된 이래, 해방 전까지 6개의 본당건물<sup>1)</sup>이 세워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약 120년에 이르는 한국 성당건축사(建築史)와도 그 궤(軌)를 같이하는 것으로, 건축양식과 전례공간의 변천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부산교구의 성당건축은 지역성을 반영하면서, 한국 성당건축의 일반적인 경향<sup>2)</sup>과 구별되는 특이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통적인 일본문화 영향지이자 최초의 개항지(1876년)라는 점에서 일본 의양풍(擬洋風)식<sup>3)</sup>, 일(日)·양(洋) 절충식 성당이 나타나며, 유서 깊은 박해 피난처와 신앙촌이라는 영향으로 자율신앙을 상징하는 한옥성당이 비교적 오랜 시간 지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해방 후 귀국지이자 6.25 내전 피난지로 급격하게 교인이 증가하면서, 짧은 시간에 성당건축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고 당시의 주류와 다른 양식이 등장하는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시기의 한국 성당건축의 일반적인 흐름과 차이가 있으며, 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기도 힘들다.

상기와 같은 다양한 시·공간적 배경은 부산교구 성당건축의 지속보다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여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산교구 주요 본당의 건축양식과 전례공간이 일반적인 경향과 비교하여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를 가지고 바뀌어왔는지, 그 변

1) 1889년 부산본당이 설치된 이래 개화기와 일제하에 건립된 성당건축은 범일성당(1893), 경주성당(1926), 언양성당(1926), 삼랑진성당(1930), 청학성당(1939), 밀양성당(1940)의 6개이다. 부산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교구 30년사, 천주교부산교구, 1990, p.1050.

2) 한국 성당건축의 일반적인 경향은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한국 천주교 성당건축의 변천과정과 토착화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6년 2월호, 윤일주, 한국에서의 근대건축의 발전, 대한건축학회지 1986년 3월호,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사연구1, 발언, 2003,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등의

주요 선행 연구에 기초한 경향을 말한다.

3) 유사 서양식건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군대에 유행하였으며 외형적으로 서양식이고 내부구조는 일본식인 건축을 말한다.

4) 지역성 반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3장 참조.

화경향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 같은 시도는 일차적으로 부산교구 성당건축의 변화과정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며, 나아가 한국 성당건축 변천사의 새로운 기초적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sup>5)</sup>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상기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 성당건축의 일반적인 경향을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런 다음 19세기 말에서 1962년 사이에 설립된 천주교 부산교구 본당 중 일차적으로 건축양식과 전례공간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 주요 5개 성당<sup>6)</sup>, 즉 범일성당, 삼랑진성당, 밀양성당, 중앙성당, 동래성당을 연구의 범주로 삼아 일반적인 경향과 비교분석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 1) 비교적 긴 역사에 따른 다양한 변화
- 2) 다수의 건축행위로 인한 변화
- 3) 지역성의 영향에 의한 변화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사진, 도면, 도서, 논문 등의 기록물 분석과 답사, 인터뷰 등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실측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성당 대부분은 멸실되었으므로, 건축양식과 전례공간의 변화는 주로 부분적으로 촬영된 사진과 추정도면, 유사사례 조사와 관계자의 자문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2. 한국 성당건축의 양식과 전례공간 구성의 일반적 경향

### 2.1. 건축양식의 일반적 경향

한국 성당건축의 변화는 굴곡의 근대역사와 함께해왔다. 본격적인 성당건축의 시작은 19세기 말 서구열강들과 수호조약<sup>7)</sup>으로 신앙의 자유가 획득되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가 한국 성당건축

의 구체적인 양식과 전례공간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기간이다. 이를 다시 세분해보면, 개항과 함께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성당이 건립되기 시작한 '개화기(1883-1910년)', 일제의 종교탄압 속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선교사가 성당건축을 주도한 '일제강점기(1910-1945년)', 성당건축이 양적으로 팽창한 '해방 후 내전과 복구기(1945-1962년)', 교계(敎階)체제의 변경, 경제발전의 영향 등으로 성당건축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현대사회기'(1962-1992년)로 나눌 수 있다<sup>8)</sup>.

개화기(1883-1910) 성당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개항(開港)과 '한·불수호조약'이라는 사회적 변화였다. 당시 개항지는 성당건축을 위한 토지매입과 여타 선교활동이 비교적 용이했으며, 프랑스는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데에 조약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토대에서 출발한 프랑스 신부들의 교세는 한반도전체와 만주의 간도지방에 까지 확장된다. 대체로 이 시기의 성당건축은 토착화되면서 주로 지방에 건립된 한옥 혹은 한양절충식(韓洋折衷式)성당과, 선교사에 의해 이입된 서양식 성당의 세 유형이 주류를 이룬다.<sup>9)</sup>

일본강점기(1910-1945)의 시작은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고 제국주의가 득세하면서였다. 그런데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박해가 종식되고 신앙과 선교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제도(制度)로서 교회의 모습을 확립한 시기이기도하다. 하지만 교회의 사회참여 폭은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은 민중이, 정치·경제는 일본인이, 교회운영은 선교사라는 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sup>10)</sup> 이 시기는 프랑스외에도 독일, 미국, 아일랜드 등의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가 활동<sup>11)</sup>을 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주도된 성당건축은 대체로 목조와 조적조가 혼용된 한·양절충식과 벽돌조 서양식으로 나뉜다.

해방 후 내전과 복구기(1945-1962년)에는 완전한 종교

5) 그간 한국 성당건축 변천의 전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았으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건축양식과 전례공간의 변화에 초점을 둔 세부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연구는 한국성당건축사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사실들을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보완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적 근거가 된다고 본다.

6) 개화기에서 1962년 사이에 현 부산교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총 24개의 성당이 건립되었다. 이 중 최초 신축 후 큰 변화 없이 현존하는 14개(연양성당, 청학성당 포함)와, 1950년대에 처음 건립 후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재축하여 다양한 변화를 판단하기 어려운 4개, 소속 교구가 변경된 1개(경주성당은 현재 대구교구 소속)를 제외한 5개 성당을 말한다. 이런 기준으로 선정된 5개 성당은 비록 수는 하나 부산교구를 대표하는 주요본당이란 점에서 일차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부산교구 성당건축의 전체적인 변화경향을 대변하기에는 수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6-70년대에 본당이 설립된 성당건축을 두 번째(Ⅱ), 그리고 80년대 이후 본당의 성당건축을 세 번째(Ⅲ) 대상으로 삼아 연속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의 제목에 수식기호 '(Ⅰ)'이 부가되었다.

7) 1882년 한미조약, 1883년 한영, 한독조약, 1886년 한불조약

8) 한국근대역사를 세분하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성당건축사의 입장에서 해방 후 전란과 복구기를 1962년까지로 보는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Vatican II, 1962년 10월에서 1965년 12까지 천주교회를 내적으로 쇠신하고 현대에 적용시키며, 외적으로는 문화를 개방하여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소집된 공의회로 현대교회건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전례 현장(Sacrosanctum Concilium)' 등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이 발표되었으며, 교회와 사회, 문화, 예술 등에 대한 현대적 상황을 세부적 지침으로 집대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천주교의 전례형태와 성당건축의 공간구성의 변화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 가톨릭 대사전, 1998, pp.7447-7450.)의 영향 때문이다. 김정신, 앞 논문, 윤일주, 앞 논문, 한국건축역사학회, 앞의 책 참조.

9) 김동욱, 앞의 책, p.351, 김정신, 앞의 책, pp.22-31.

10) 노길명,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빅벨출판사, 1988,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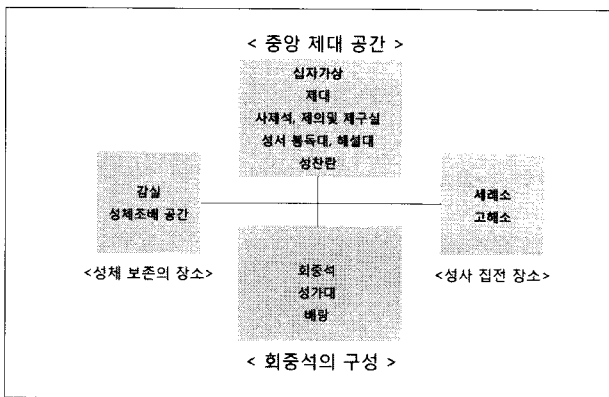
11) 프랑스계 파리 외방전교회가 서울, 대구교구를, 독일 베네딕도 수도회가 덕원, 함흥, 연길교구를, 미국계 메리놀 외방전교회가 평양교구를, 아일랜드계 콜롬바노 외방전교회 관할 하의 광주, 춘천교구 등이다. 최석우,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적 자유, 6.25 내전으로 인한 고난, 반공투쟁, 유엔군의 원조, 미국교회의 헌신적인 구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교세가 양적으로 팽창한 시기였다. 이 시대의 성당건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변형된 서양식, 모더니즘 건축, 그리고 건축의 토착화를 시도한 절충주의 성당이 그것이다.<sup>12)</sup>

현대사회기(1962-1992년)에는 민주화, 경제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많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게 된다. 천주교회는 이런 외부 영향과 함께, 교계제도(敎階制度) 설정과 앞서 본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내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 특히 성당건축은 건축기술의 발전과 전례의 간소화 등으로 모더니즘건축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여전히 서양식과 절충식, 복고풍 등의 다양한 유형이 등장한다.

## 2.2. 전례공간 구성의 일반적 경향

상기와 같은 성당건축의 양식적 변화는 실내의 전례공간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라 판단된다. 미사집전의 중심인 전례공간은 성당건축의 형태와 평면을 구성하는 양식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례공간은 성당건축에서 중심장소가 되며, 크게 '중앙 제대 공간(The Sanctuary)', '성체 보존의 장소', '회중석의 구성', '성사 집전 장소'의 네 곳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전례공간 구성도

중앙 제대 공간은 사제와 신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과 표징을 반복하여 행하는 전례의 본질공간이자, 성당의 출발점이다. 이곳은 원칙적으로 제대(Altar), 전례의 성상(icon)인 십자가상(The Crucifix), 미사집전 신부를 위한 특별한 의자인 사제석(The Chair), 말씀의 전례와 선포를 위한 성서봉독대(The Ambo), 비전례적인 발표나 안내를 위한 해설대(The Lecturn), 제대와 신자석사이의 성체성사공간인 성찬란(The Rail), 전례에 필요한 제구, 기물, 제의 등을 보관하고 사제가 전례 집전을 준비하는 장소인 제의 및 제구실(The Sacristy)

을 포함한다.

성체 보존의 장소는 성체의 실존을 표상하는 감실(龕室, Tabernacle)을 포함하는 성체초배(聖體朝拜) 공간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리는 곳이다. 회중석의 구성은 회중석(The Nave), 성가대(The Choir), 그리고 성당의 입구인 배랑(The Narthex)으로 이루어지며, 전례공간의 거룩함과 공동체공간의 친밀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성사집전 장소는 성당에서 제대 다음의 중심장소로서, 세례성사를 위한 공간인 세례소(The Baptistry)와 회개와 치유의 공간인 고해소(Confessional)로 이루어진다.<sup>13)</sup>

개화기 성당건축의 전례공간은 일반적으로 중앙 제대 공간과 성체 보존의 장소가 전면에 위치한다. 그리고 성찬란을 경계로 후면에 남녀공간이 구분된 회중석과 입구인 배랑이 위치하는 장방형구조이며, 별도의 성사 집전 장소는 없었다. 한옥식과 절충식 성당의 경우, 종간(縱間)의 연속적인 연결로 장축방향 동선의 바실리카식 교회가 갖는 공간분절 효과를 내었다. 그리고 서양식성당은 주로 고딕을 모방하여 신랑(Nave)과 측랑(Aisle)을 구분하고, 높은 충고와 베이(Bay)체계로 강한 수평·수직성이 강조되는 공간을 구성했다.

일본강점기의 성당 전례공간 구성은 기본적으로 개화기와 유사했다. 다만, 기술적 경제적 제약으로 내부공간의 분절화가 약해지면서 공간보다는 종탑과 아치 같은 상징적 요소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해방 후 내전과 복고기 성당건축의 전례공간 또한 전술한 기본적 구성을 따랐으나, 변형서양식과 절충형 성당은 신랑과 측랑의 구분과 베이체계가 사라진 단순한 강당형태의 일체형 공간구성을 보였다. 그리고 모더니즘 계열의 성당건축은 신랑과 측랑의 구분 뿐 만아니라, 아치나 볼트의 구성도 없는 탈-양식적 구성으로 합리성과 기능만을 중시하였다.<sup>14)</sup>

현대사회기에는 다양한 양식의 성당건축의 출현과 함께, 앞서 말한 공의회와 교계제도(敎階制度)의 설정의 영향으로 전례공간은 전례의 간소화, 미사방향의 변화, 전례의 토착화라는 현상과 연계되어 구성된다. 예컨대, 엠스(apse)나 제단벽의 근처에 붙어있던 그리스도와 만남의 장소인 제대는 사제가 제대 주위를 충분히 돌 수 있도록 벽과 공간을 유지하며, 신자들의 주의가 자연히 모이는 중심에 둔다. 그리고 공의회 이전에는 사제가 신자를 등진 상태로(신자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미사를 행하였으나, 그 이후 마주보고 행한다. 감실의 위치 또한, 이전에는 성단 내 감실제대 위에 두었으나, 지금은 제대 중앙 뒤쪽이나 성단의 좌 혹은 우측에 위치하며, 심지어 분리된 채플을 따로 두기도 한다.<sup>15)</sup> 또한 성찬란이 제거

13)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 가톨릭대사전, 1998, pp.439-440, 4910-4912, 4503-4505, 7609-7614.

14) 김정신, 앞의 책, pp.7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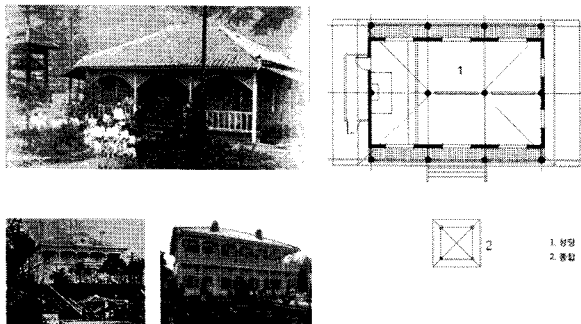
12) 김정신, 앞의 책, pp.78-79.

되면서 중앙제대공간과 회중석의 적극적인 교류가 유도 되고, 남녀구분도 사라졌다.

### 3. 부산교구 성당건축의 양식과 전례공간 변화경향

#### 3.1. 범일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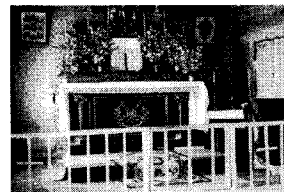
부산은 최초의 개항지(1876년)였으므로, 비교적 이른 시기인 1889년에 본당이 설립된다. 그리고 1893년에는 프랑스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신부에 의해, 약 30평 규모의 목조와 벽돌조가 혼용된 부산 최초의 성당건축인 초량성당(현 범일성당)이 준공된다.<sup>15)</sup> 이 건물은 당시 한국 성당건축의 주류양식(한옥식, 절충식, 서양식)을 벗어난 일본식 의양풍건축이란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이것은 그 주변이 왜관(倭館)에서 조계지(租界地)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일본인 주거지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이 지역은 1678년 초량왜관(草梁倭館)이 창건된 이후로 조선과 일본 건축기술자 간의 전통적인 건축 문화와 기술교류의 장(場)이었으며,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된 개화기에는 일본인 건설청부업자나 왜목수, 일꾼들이 건축생산과 기술을 주도하는 곳이었으므로,<sup>17)</sup> 그 영향이 충분히 미쳤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항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이 유사했던 원산(1880년 개항, 1887년 본당설립)과 인천(1883년 개항, 1889년 본당설립)에 세워진 성당건축은 각각 한옥(초가)식<sup>18)</sup>과 서양식(답동성당, 고딕식, 1897준공)<sup>19)</sup>이었다는 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그림 2> 1893년 초량성당(현 범일성당, 연면적 약 30평 추정) 전경(위 좌)과 추정도면(위 우, 이하 범일성당 추정도면 전체는 관련 문헌 기록과 사진 분석, 그리고 범일성당 사제, 수녀, 사목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자 작성), 아래는 일본식 의양풍건축으로 부산 일본영사관(1884, 좌), 일본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중공업 휴게소(1896,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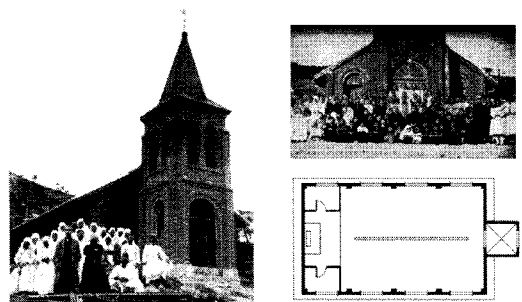
15) 김정신, 현대 성당건축의 성단구성과 성물에 대한 실천신학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6호, 2003년 2월, p.103.  
 16) 초량성당은 1892년 프랑스 파리의방전교회 소속으로, 부산본당 초대 신부인 Moyses Jozeau 신부에 의해 설계, 착공되어 1893년 2대 Paulus Oudot 신부가 완공하였다. 천주교 부산교구 범일교회, 부산선교 90년사, 분도인쇄출판사, 1979, pp.81-87.  
 17) 정예정·서치상, 1727년 초량왜관 수리의 일본 장인과 도구에 관한

물론, 위와 같은 건축적 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건물은 멸실된 상태라 당시의 정확한 건축동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산 본당의 초대 사제였던 Moyses Jozeau 신부가 부지선정과정에서 일본인 전관거류지 근처라는 명목으로 일본인들로부터 방해(20) 거부감을 줄일 필요가 있었고, 건축기술자와 자재의 조달 측면에서도 당시 일본에서 유행한 의양풍건축의 선택이 유리했다는 점<sup>21)</sup> 등의 지역적 정서와 건축여건을 감안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경북 칠곡 가실 본당 중앙 제대공간 (1894-1905)

초량성당의 기본적인 전례 공간 구성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파리의방전교회 소속의 일반적인 성당건축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참조> 즉, 중앙 제대공간과 감실-성찬란-마루바닥 구조에 남녀공간이 칸막이로 구분된 회중석-배랑<sup>22)</sup>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동선구조와 공간의 질(質)에서는 차이가 있다. 주 출입구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평면의 장변 중간에 있어서, 주출입구 발코니공간이 배랑이 되며, (당시의 한옥과 절충식 성당에서 보이는) 분절된 공간보다 강당과 같은 일체형 공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1916년 부산진본당(현 범일성당, 연면적 50평)과 추정평면(우 아래), 1928년 벽돌조로 개축당시 전경(우 위)

초량성당은 1916년 범일동으로 이전하여 부산진본당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리고 이때에 신축·완공된 성당건축은 약 50평 규모의 일·양 절충식이었다. 일체화의 성당건축이 주로 한·양 절충식과 서양식이었던 점에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6권 5호, pp.21-22.

18) 한국교회사연구소, 빛·믿음·혼적, 2004, pp.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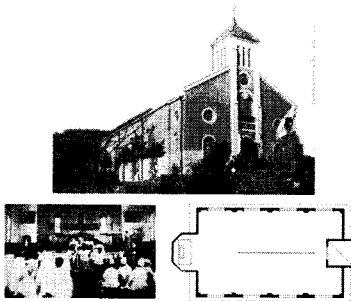
19) 손장원, 인천근대건축, 간향미디어랩, 2006, p.222.

20) 천주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세계 단일 교파로서, 한번 뿌리내리면 일본인 전관거류지 내의 주민들이 천주교에 동화되어 심사참배와 일본천황 숭배사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일본인들은 주변에 천주교가 자리 잡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좌 중앙성당, 중앙성당 오십년사, 1999, p.144.

21) 당시의 서양식건축을 설계한 일본 건축가와 기술자들이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에 있었고, 목재의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김태영, 한국근대도시주택, 기문당, 2003. p.26. pp.95-104.

서 이 또한 예외적이며,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이 강했던 부산성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sup>22)</sup> 이 건물은 장방형 평면으로 일본식 목조건물과 벽돌조적조의 고딕식 종탑이 결합된 형태였다. 일제하의 기술적·경제적 제약을 반영하듯, 본당건물은 목조뼈대에 판재를 마감한 무장식의 단순한 형태였다. René Peschel 신부의 설계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초량성당과 큰 차이는 강한 상징성을 갖는 종탑이 주 건물에 부가되고, 주 진입이 전통적인 장축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리고 목조부분은 1928년에 다시 벽돌조로 확장 개축된다.<sup>23)</sup>

전례공간 구성은 장축방향으로 동선이 변화되면서, 종탑하부 출입구인 배랑에서 회중석과 중앙 제대공간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전통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내부 공간은 신랑과 측랑이 구분되고 베이체계로 분절성이 일어나는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라 단순한 강당형태였다. 회중석은 남녀공간이 칸막이로 구분된 좌식 마루였으며, 중앙 제대 공간구성은 초량성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별도의 성체조배 공간과 성사집전 장소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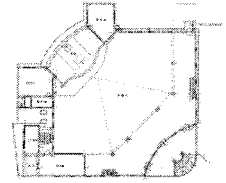


<그림 5> 1935년 부산진본당(현 범일성당, 연면적 약 130평 추정)과 추정평면(아래 우), 실내 전례공간(아래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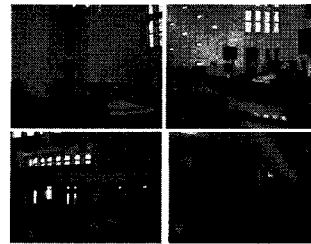
1935년 부산진본당은 늘어나는 교세에 맞추어 기존건물을 해체한 후 확장 신축된다. 당시 본당신부인 Joseph Bulteau 신부의 설계<sup>24)</sup>로 벽돌 조적조에 몰탈을 마감한 르네상스식 성당 건축으로, 진입방식과 종탑의 위치는 이전과 동일했다. 외형적으로는 양식이 변하고 폭과 높이도 확장되었으나, 장방형 평면의 강당형 공간으로 전례공간 구성은 이전 건물과 유사했다. 다만, 중앙 제대공간의 전면에 앱스(apse)가 돌출되며, 제대, 감실, 성상, 사제석 등이 그곳에 배치되고 성찬란으로 회중석과 경계를 짓고 있다. 그리고 회중석과 성단의 바닥은 비교적 높은 단차이로 공간이 구분되었다.

그런데 해방과 내전을 거쳐 현대사회기에 접어든 1964년에 범일성당은 획기적인 건축적 전환을 이룬다. 전례운동(Liturgical Movement)<sup>25)</sup>에 디자인 원천을 둔 알빈

(Alwin Schmid)신부<sup>26)</sup>의 설계로, 모더니즘양식의 비교적 규모가 큰 연면적 750평의 성당이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장식이 배제되고 기능중심으로 형태와 공간이 구성되었으며, 평면이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유로운 부채꼴로 바뀌었다.



<그림 6> 1964년 범일성당 전경과 실측 평면도(연면적 750평, 범일성당 제공)



<그림 7> 중앙 제대공간(위 좌), 회중석과 성단의 관계(위 우), 회중석 2층 성가대석과 성체조배실(아래 좌), 이동식 고해소(아래 우)

전례공간 구성은 형식상으로 전통적인 공간배열, 즉 ‘제의 및 제구실-중앙 제대공간과 감실-회중석-배랑’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우선 중앙 제대 공간에 사제가 벽과 제대사이를 이동할 수 있

게 공간을 두며, 전면 벽에 성상과 감실이 위치한다. 제대 주변으로 사제석과 봉독대가 놓이며, 성단바닥은 회중석과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해 낮고 곡선형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공간적 위계를 상징하던 성찬란은 제거되었다. 회중석의 구성은 부채꼴 평면에 따라 제대공간과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신자석이 배치되고 남녀공간 구분은 사라졌다. 성가대석과 성체조배실은 배랑인 출입홀 상부 2층에 별도로 마련되어있다. 성사집전 장소로서의 세례소는 별도로 없으나, 고해소는 이동식 목구조로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있다.

### 3.2. 삼랑진성당과 밀양성당

삼랑진성당과 밀양성당은 현재 부산교구에 속하며, 역사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통합해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들은 공히 1916년 마산포 본당에서 분리된 명례성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곳은 유서 깊은 박해피난처 신앙촌<sup>27)</sup>으로 1926년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22) 당시 일본 전관거류지 근처 부민동에 일본인 전도사 이구마 라이기찌(生熊來吉)가 초장공소를 설립해 부산진본당과 교류가 있었고, 건축자재 조달과 건축기술제공에 도움을 주었다. <그림 4>의 좌측 사진 전면의 일본인이 전도사 이구마 라이기찌이며, 우측이 설계와 공사를 총괄한 당시 본당신부 René Peschel이다.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와 중앙성당, 앞의 책, pp.143-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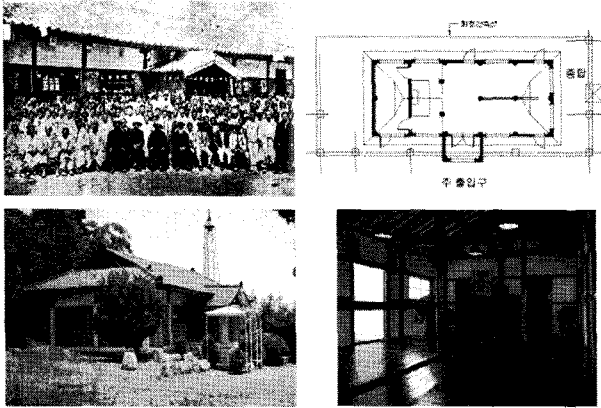
23) 천주교 부산교구 범일교회, 앞의 책, p.103.

24) 앞의 책, p.110.

25) 교회의 전례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적극 참여시키려는 운동. 19세기 말 베네딕토 수도회를 중심으로 독일과 벨기에에서 시작하여

전유럽 천주교회에 전파되었다. 김정신, 앞의 책, p.98.

26) 1904-1978, 독일 베네딕토 수도회 소속 선교사. 한국에서 20년간(1958-1978) 127개소의 성당건축을 포함하여 188개소의 천주교 건물을 설계함으로써,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현대교회건축의 혁신적인 개념과 다양한 실험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김정신, 교회 건축가 알빈 슈미트신부의 성당건축 유형과 디자인 원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6권 4호, 2007년 8월, p.131.



<그림 8> 명례한옥성당(1928, 연면적 약 60평)(위 좌), 복원건물 실측도면(위 우, 필자 작성), 축소·복원성당(1935)(아래 좌, 연면적 20평), 전례공간의 구성(아래 우)

지역 최초로 본격적인 한옥성당을 신축하여 1928년 8월에 축성식을 가졌다.<sup>27)</sup> 일제하에서 성당건축은 한·양 절충식과 서양식이 주류였으므로, 이처럼 전통 한옥성당이 건립된 것은 특이한 현상이며, 그 배경을 추적해보면 대체로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된다.

첫째, 이 지역은 당시 외국 선교사에 의해 천주교가 전파된 곳이 아니라, 전통 신앙촌으로 자율신앙이 뿌리 내린 곳이라는 지역적 정서가 반영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신앙심은 일제하에서 저항의식으로 연결되어 전통건축양식을 지향하는 데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한옥성당은 지금도 축소·복원되어 후손들에 의해 관리가 될 만큼, 이 지역 신자들의 강한 의지가 배어있어 그 상징성이 크다.<sup>29)</sup> 특히, 삼랑진 성당의 경우 공소로 전락했다가 내전 후 복구기인 1957년 본당이 부활할 때,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전통 한옥성당을 다시 건립했다는 점<sup>30)</sup>에서 이런 가능성은 높다. 둘째, 신축당시 설계와 시공을 주도한 본당신부가 한국인(권영조 마르코)<sup>31)</sup>으로 서양식건축보다 한옥에 익숙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재조달과 기술적 여건 등에서 건립이 용이한 한옥성당을 선택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명례성당은 교통이 불편하여 1930년에 본당이 삼랑진으로 이전·설치되며, 1940년 다시 밀양시 내이동으로

이전하면서 밀양본당이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명례성당은 공소로 지속되었고, 삼랑진성당은 밀양본당 설립 후 공소로 되었다가 1957년 별도의 본당으로 부활한다. 공소로 전락한 명례성당은 1934년 태풍으로 인하여 전파(全破)된 후, 1935년 동일한 자리에 축소·복원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건립되어 현존하는 부산교구 유일의 한옥성당으로, 당시의 전례공간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 사료(史料)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성당의 외부형태와 내부공간구성을 직접 실측을 통해 세밀하게 조사하였다.<그림 8 참조>

명례성당은 전체가 3칸×7칸의 삼랑식 구조로, 전례공간은 한옥의 종간과 횡간을 바꾼 전형적인 장방형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한옥성당과는 달리, 장변중앙에 주 출입구인 배랑을 두어 칸구조에 따른 공간의 분절성이 감소되면서 일체형 공간에 가깝게 느껴진다. 종탑은 1960년대에 별도로 설치한 것이며 신축과 복원 당시에는 없었다. 제대공간에는 중앙 열주가 삭제되어 하나의 공간이 되며, 그 뒤에 외부출입이 가능한 계구·제의실이 별도로 있다. 성찬란<sup>32)</sup>은 회중석과 중앙 제대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계역할을 했고, 회중석은 마루바닥 구조이며 남녀공간이 나무 칸막이로 구분되고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 그 외, 분리된 성체조배 공간, 성가대석, 세례소, 고해소는 없다.

삼랑진성당은 본당이 방금 본 명례성당에서 권영조 신부의 주도로 1930년 교통 요충지인 삼랑진 우곡리로 이전되면서 시작된다.<sup>33)</sup> 당시 본당건물은 변형서양식으로 장방형평면의 벽돌벽과 목조지붕으로 건축되었으며, 여러 번 개축되어 현재 개신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전례공간은 장축방향으로 '배랑-회중석-중앙 제대공간'이 이어지는 일반적구성이며, 강당형의 일체식 공간으로 장식 배제되고 단순했다. 그 후 전교확대를 위해, 본당은 1935년 경부선 철도의 요충지인 삼랑진역 앞에 Theopile Parthenay신부의 주도로 새 성전을 완공하고 다시 이전한다. 이 건물은 일본식 목조 뼈대와 서양식 벽돌벽이 조합된 일·양 절충식이며, 당시 한·양 절충식과 서양식이 주류였던 성당건축의 일반적인 경향을 벗어나 있다. 건물전체는 장방형평면으로 종탑은 없었고, 장변진입 방식과 전례공간의 구성은 명례성당과 유사했다.

그런데 삼랑진성당은 교구청의 명령으로 교세확장을 위해 1940년 밀양성당으로 본당을 옮기게 되면서 공소가 된다. 이후 교세가 약해지고 공소마저 없어지기도 했으나, 1957년 한국인 사제 유선이(요셉) 신부의 취임으로 본당이 부활되면서 한옥성당을 세웠다.<sup>34)</sup> 이는 내전 후

27) 삼랑진 지역에 신앙촌이 형성된 유래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도마스)의 묘가 경남 밀양군 삼랑진읍 용전리 동이비알에서 발굴됨으로써 밝혀졌다. 이것은 지방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고장임을 의미한다. 자세한 기록은, 김구정, 천주교 경남 발전사를 비롯한 수편의 기록으로 확인된다. 침주교삼랑진교회, 삼랑진성당 60년사, 1990, p.87.

28) 부산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앞의 책, pp.519-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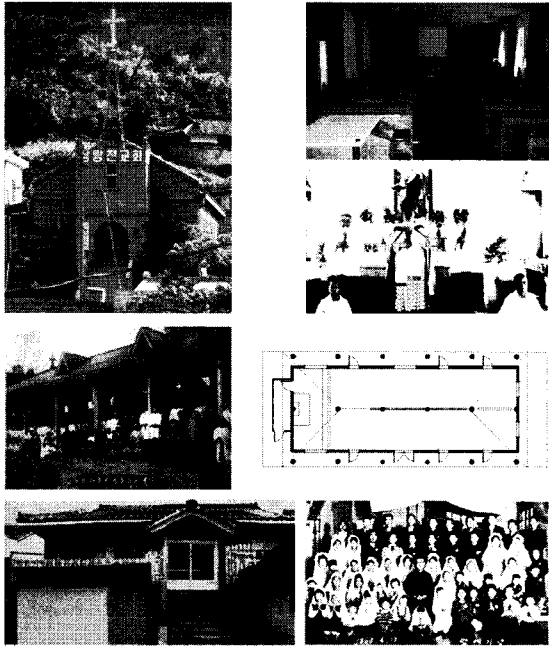
29) 이런 가능성은 초기 신앙촌의 후손으로, 조부가 명례한옥성당 건립에 직접 관여했고, 현재 복원성당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김종빈의 자문을 감안한 것이다.

30) 천주교삼랑진교회, 앞의 책, p.101.

31) 명례성당은 1897년 용산신학교 1회 졸업생인 강성삼 신부가 부임하여 임시본당이 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대체로 한국인 신부의 책임이 많았다. 앞의 책, p.80.

32) 복원된 명례성당 기둥에는 성찬란은 없으나 그것을 결합한 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존재의 추정이 가능하다.

33) 앞의 책, p.81.



<그림 9> 1930년 신축 삼랑진성당(위 좌, 약 40평), 전례공간(위 우), 1935년 신축 삼랑진 성당(중간 좌), 추정평면도(중간 우측 아래, 이하 삼랑진, 밀양성당 추정도면 전체는 관련 문헌 기록과 사진 분석, 그리고 관련 사제, 수녀, 사목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자 작성, 연면적 약 60평), 전례공간(중간 우측 위) 1957년 삼랑진 한옥성당(아래 좌), 전례공간(아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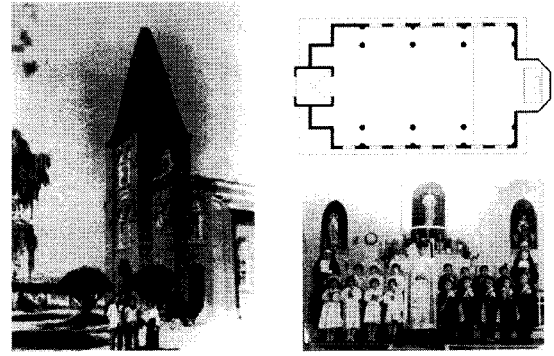
복구기에 우리나라 성당건축이 변형서양식, 한·양 절충식, 그리고 모더니즘양식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전례공간과 동선의 구성은 과거 삼랑진성당의 기원이었던 명례성당과 매우 유사했다.



<그림 10> 1967년 신축 삼랑진성당(좌), 전례공간 전경(위 중간, 연면적 120평), 중앙 제대공간(위 우), 성가대석(아래 좌), 성체조배실(아래 중간), 고해소(아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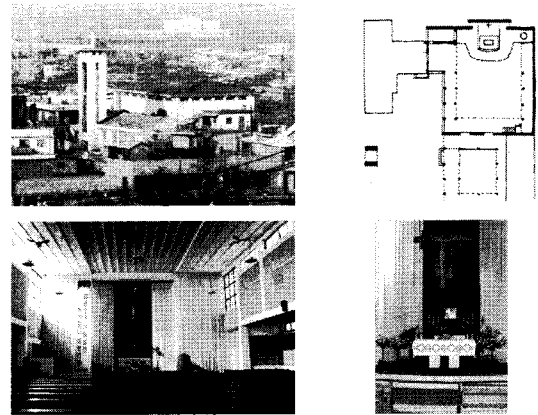
삼랑진성당은 1967년 교세확장을 위해 한영일(니콜라오)신부의 주도로 삼랑진 송지리로 다시 이전하여 모더니즘양식의 성당을 신축한다.<sup>34)</sup> 이 시기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영향이 컸으며, 평면과 전례공간구성은 이 정신을 반영해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계획되었다. 성당내부 중앙 제대공간의 배치, 성상과 감실의 위치, 성단바닥과 회중석의 관계 등은 유사한 맥락에서 건립된 1964년의 범일성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성단과 회중석사이 측면에 성가대석이 배치된 점이 다르

34) 부산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앞의 책, p.521  
35) 천주교삼랑진교회, 앞의 책, p.112.



<그림 11> 1940 내이동 밀양성당(좌), 추정평면(위 우, 연면적 약 100평으로 추정), 실내공간(아래 우)

다. 그 외 성체조배실과 고해소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밀양성당은 앞서 보았듯이, 명례성당과 삼랑진성당을 거쳐 1940년 교구청의 명령으로 내이동에 본당이 설립된다. 유홍모(안드레아) 초대 신부의 주도로 신축된 성당건축<sup>36)</sup>은 정면중앙에 종탑이 있는 장방형평면의 변형 고딕식 벽돌조로서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성당내부 돌출한 앱스에 제대, 감실, 성상, 사제석 등이 배치되고, 성찬란으로 회중석과 경계를 짓고 있다. 그리고 회중석은 신랑과 측랑이 구분되는 구조였으나, 실제로는 기능적 차이가 거의 없는 일체형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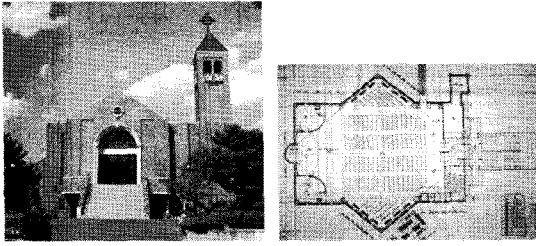


<그림 12> 1964년 신축된 내일동 밀양성당 전경(위 좌), 평면도(위 우, 연면적 389평), 성당 내부공간 구성(아래 좌), 성단의 구성(아래 우)

1964년 밀양성당은 교세확장을 위해 다시 도시 중심부 내일동으로 이전된다. 이 시기에 신축된 성당건축은 알빈 신부 설계의 모더니즘양식<sup>37)</sup>이었다는 점에서, 앞의 범일성당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장식미가 배제되고 평면이 기능에 충실하며, 전례공간이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장방형 평면이나, 그 길이가 짧고 폭이 넓게 구성되어 회중석과 제단을 근접하도록 만들었고, 천장의 선형디자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십자가로 모으고 제단에 집중하도록 했다.

36) 부산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앞의 책, p.534.  
37) 김정신, 앞의 책, p.103.





<그림 13> 1997년 신축 밀양성당 전경과 전례공간 평면도(밀양성당 제공)

1997년 밀양성당은 신자의 증가에 따라 시 외곽 교동으로 확장·이전하여 새 성전을 건립한다. 이 건물은 일반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복고풍으로, 위의 내일동 성당과는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앰스의 부활, 신랑과 측량의 구분, 적벽돌마감 등 해방 후 내전과 복구기의 변형서양식 성당건축의 경향을 띠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은 미약해보이며, 오히려 당시 건축계에 핵심 이슈였던 전통지향의 포스트모던건축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건물은 1990년 이후 한국성당건축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4> 성당내부 전경(위), 중앙 제대공간(중간 좌), 회중석 2층 성가대석(중간 우), 성체조배실(아래 좌), 고해실(아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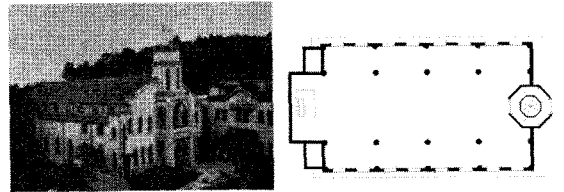
전례공간의 구성에서 중앙 제대공간은 내일동성당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성단이 다소 높아지고 앰스가 강조되며, 그 속에 감실이 놓여있는 점이 독특하다. 이것은 성단과 회중석의 적극적인 교류보다, 강한 위계성을 부여하여 공간을 분리하려는 전통적인 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성가대석과 성체조배실, 고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으며, 세례소는 없다.

### 3.3. 중앙성당

중앙성당은 교세확장과 함께 1948년 범일성당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본당으로 설립된다. 이 시기 현 부산교구 지역은 해방 후 귀향민과, 6.25 내전의 피난민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sup>38)</sup>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38) 1945년 부산인구는 28만 명이었던 것이 1948년에는 50만 명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6.25내전으로 5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유입되면서 1951년 2월 10일 전시 국정수행 차원의 인구조사에서 부산의 일반시민은 88만 9천명에 이르렀으며, 이외에도 구호대상 피난민이 40~50만에 이르렀다. 신자수도 1944년 1,877명이었으나 1958년에는 약 30배에 달하는 54,799명이었다. 부산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앞의 책, pp.260-261, p.267, 335. 이처럼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신자증가로 인한 부산교구 성당건축의 변화는, 해방과 격동기에 일반적으로 교세의 양적인 팽창이 일어난 타 지역과는 차이가 있으며, 부산교구만의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자수도 획기적으로 늘고 전국에서 많은 사제와 수녀들이 모여들면서, 대규모 성당건축과 함께 독립된 부산교구가 설립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근·현대교회사에서 부산만이 갖는 독자성이며, 중앙성당이 건립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15> 1956년 원공 중앙성당(위 좌, 연면적 약 500평), 추정 평면(위 우, 이 도면은 관련 문헌기록과 사진 분석, 그리고 중앙성당 사제, 수녀, 사목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자 작성), 전례공간 전경(아래 좌), 중앙 제대공간(아래 우)

초기에 중앙성당은 일본인 사찰 지은사(智愿寺)를 개조해서 성전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곧이어 6.25 내전으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중앙성당은 수많은 피난민의 수용소가 된다. 성직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최고의 선교사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의 전교에 힘입어 중앙성당은 한국 굴지의 본당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러한 시·공간적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교세가 확장되면서 1956년 약 500평의 대규모 서양식 성당을 신축·준공하게 된다. 당시 새 성전 건립은 본당사제인 장병룡(요한), 이종홍(그리산도) 신부가 주도했으며, 장방형 평면으로, 앰스가 돌출되고 주 출입구 가운데에 성곽형태의 종탑이 강조되는 로마네스크식교회였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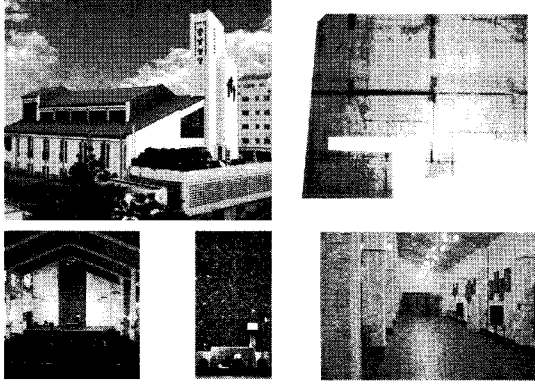
전례공간의 구성은 ‘앰스를 갖는 중앙제대공간-신랑과 측량의 구분이 뚜렷한 회중석-성곽형 종탑하부 배랑’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내부열주를 통한 수직·수평의 공간적 분절이 두드러지는 전형적인 바실리카식 성당건축의 공간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의 서양식 성당들이 종탑을 성곽형태로 표현하면서 정면을 강조한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대체로 간략화·소규모화되면서, 내부 열주가 사라지고 공간의 분절성이 약한 단순 강당형태의 일반적인 건축경향<sup>40)</sup>과는 달랐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당시 중심성당으로 전통적인 대규모 서양식 성당건축이 필요했던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연계된 것이라 판단된다.

부산지역은 6.25이후의 지속적인 교세의 팽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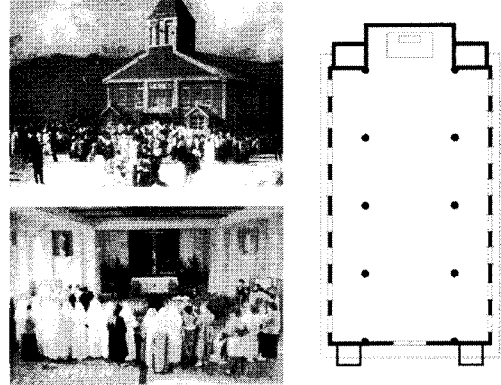
39)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와 중앙성당, 앞의 책, p.180.

40) 김정신, 앞의 책, p.94.





<그림 16> 중앙성당 전경(위 좌, 연면적 약 1,100평), 전례공간 평면도(위 우, 중앙성당 제공), 성당내부(아래 좌), 중앙 제대공간(아래 중간), 축랑 공간(아래 우)



<그림 17> 1954년 완공 동래성당 (위 좌), 추정평면(우, 이도면은 관련 문헌기록과 사진 분석, 그리고 관련 사제, 수녀, 사목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자 작성, 연면적 70평), 전례공간(아래 좌)

1957년 대구교구에서 독립하여 부산교구가 정식으로 설립된다. 그리고 선교의 중심점이었던 중앙성당이 주교좌본당이 된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비해 성당건축은 협소했으며, 부실시공으로 더 이상 지탱이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1972년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1,100평에 이르는 모더니즘양식의 대규모 새 성전이 일반건축가(건축사 반미태)의 설계로 준공된다.

그런데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장식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적이기는 하나, 형태와 전례공간의 구성에서 이전 성당을 재현하려는 포스트모던적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장방형평면의 동일한 방향배치, 종탑의 위치, 높은 층고, 신랑과 축랑이 구분된 박공식 지붕과 고측창(clearstory) 등으로 수직·수평의 공간분절성이 강한 1956년 성당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 외 중앙 제대공간과 회중석의 강한 위계로 구분되고, 축벽의 스테인드글래스가 고딕식성당처럼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2층에 설치된 성가대석과 파이프오르간은 전통서구식 구성을 모방하는 등 전형적인 서양식 성당건축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6-70년대 한국의 성당건축이 전례운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으로 장방형 일변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유형의 모더니즘양식이 주류였고, 조소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도 등장한 흐름<sup>41)</sup>과 차이가 있다. 이런 결과는 당시 주교좌 본당으로서의 전통적인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부산교구의 고유한 입장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 3.4. 동래성당

동래지역은 1860년대 이미 교우촌이 형성된 오랜 역사와 유서 깊은 곳이다.<sup>42)</sup> 하지만 동래성당은 6.25 내전의 와중인 1951년에서야 본당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긴 시간 동안 공소로 지속되다가, 동래지역에 피난민에 의한 신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때문이었다. 그리고 성당건축은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954년에 가사야 피난사제인 김충무(클레멘스) 신부의 주도로 연면적 70평의 단순화된 서양식 목조형식으로 완공하게 된다. 이 건물은 시공과정에서 한국군 공병대에서 정지작업을, 미군에서 자재를 지원받아 완성되었다<sup>43)</sup>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적,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서양식 목조의 성당건축은 그 시기에 벽돌조 혹은 철근콘크리트조의 변형된 서양식, 모더니즘, 절충식 성당이 일반적이었던 점에서 예외적이다. 이것은 내전과 피난민, 군대의 원조 등이 결합된 부산의 지역성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성당 전례공간은 장방형 평면으로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강당형태였다. 중앙 제대 공간에 앱스(apse)는 없었으며, 제대, 감실, 성상, 사제석 등이 전면 벽에 배치되고 성찬란으로 회중석과 경계를 짓고 있다. 그리고 회중석과 성단의 바닥은 비교적 높은 단 차이로 공간을 구분했다. 세부적인 회중석의 구성, 성사 집전 장소, 성체 보존의 장소는 1935년의 범일성당, 1940년의 밀양성당과 유사하다.



<그림 18> 1968년 완공 동래성당 전면(좌), 배면(중간), 간이 실측도면(우)

교세의 증가와 교통의 불편으로, 1968년 동래본당은 김준필(아오스딩) 신부가 주도하여 동래 중심부에 연면적 380평 규모로 확장하여 신축·이전한다.<sup>44)</sup> 이 시기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영향으로 교계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신축 성전의 전례공간구성은 오히려 전통적

41) 김정신, 앞의 책, p.113.

42) 동래지역은 조선인 2대 사제인 최양업신부와 Antonie Daveluy 주교가 경남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할 무렵에 전교를 한 유서 깊은 곳이다. 천주교 부산교구 동래교회, 동래본당 50년, 2004, p.1.

43) 앞의 책, pp.23-24.

44) 앞의 책, p.25.

인 형식을 따른다. 다만 외형적으로는 전면이 곡선을 많이 사용한 표현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후면은 장식이 배제된 모더니즘양식을 보인다.



<그림 19> 실내공간 전경(우), 앱스와 제대(아래 좌), 별동의 성체 조배실(아래 중간), 고해실(아래 우)

전례공간구성은 중앙 제대공간 전면에 앱스와 유사한 공간이 형성되면서 그 내부에 성상이 배치되고, 좌측에는 대지형상에 따른 사선벽이, 그리고 우측에는 제구 및 제의실이 각각 위치한다. 회중석은 성단을 향한 장방형구조로 우측에 대형 스테인드글라스가 있으며, 성가대석이 2층에 있다. 성전 주 출입구 부근에 이동식 고해소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 별동의 성체조배공간이 있다. 이처럼 동래성당의 전례공간 구성은 당시에 큰 영향을 미친 공의회와 별 연관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앱을 갖는 중앙 제대공간은 회중석과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 복고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4. 결론

건축은 시대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만큼 사회환경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그런 만큼 인간의 정신적 삶과 함께해온 성당건축은, 그 시대의 사회적 흐름과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다양하게 변천하고 발전해왔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9세기 말에서 1962년이란 시간과, 천주교 부산교구 성당건축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양식과 전례공간의 변화경향을 살폈다.

그 결과 연구범주인 부산교구의 5개 주요성당건축의 변화는, 시기별로 우리나라 성당건축의 일반적인 경향과 부합하는 부분과, 지역성의 반영으로 이질적인 부분이 공존함을 밝혀내었다. 여기서 양식과 전례공간의 주요한 특이성을 본당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일성당은 전통적인 일본문화 영향지이자 최초의 개항지라는 지역성이 반영되어, 일본 의양풍(擬洋風)식, 일·양 절충식 성당으로 나타나며, 전례공간의 구성도 그에 따라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과 차이가 있었다. 그 외, 일제강점기 후반과 현대사회기 성당건축은 주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째, 삼랑진성당은 유서 깊은 신앙촌이라는 지역성의 영향으로,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한옥성당이 비교적 오랜 시간 지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전례공간구성도 전형적인 한옥성당의 특성을 따랐으나, 장변방향으

로 진입하는 특이한 동선구조로 공간의 분절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 서양식과 모더니즘 성당건축은 당시의 일반적인 흐름과 유사했다.

셋째, 밀양성당 또한 한옥성당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본당설립 이후 순차적으로 변화된 서양식,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성당건축은 양식과 전례공간구성에 있어서 시기별 일반적인 경향과 다르지 않았다.

넷째, 중앙성당은 해방 후 귀국지이자, 6.25 내전 피난지로 급격하게 교인이 증가하는 지역성의 반영으로 부산교구설립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대규모의 성당건축과 주교좌 성당으로서, 당시에 예외적인 전통양식과 전례공간의 고수라는 특이성을 낳았다.

다섯째, 동래성당은 내전과 피난민, 군대의 원조 등이 결합된 당시의 부산의 지역적 여건이 반영되어, 목조 서양식 성당이란 예외적인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전례공간의 구성은 일반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사회기에 건립된 성당건축은 당시의 주요한 영향요인인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교계제도의 변화에 비교적 무관한 특성을 보였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만으로 부산교구 성당건축의 전체적인 변화경향을 대변하기에는 수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6-70년대에 본당이 설립된 성당건축을 두 번째(Ⅱ), 그리고 80년대 이후 본당의 성당건축을 세 번째(Ⅲ) 대상으로 삼아 후속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성과 성당건축 변화경향의 상관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완·분석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가 향후 부산지역 성당건축의 계획방향 설정에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 참고문헌

1.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2. 김정신, 교회 건축가 알빈 슈미트신부의 성당건축 유형과 디자인 원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6권 4호, 2007년 8월.
3.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4. 김정신, 현대 성당건축의 성당구성과 성물에 대한 실천신학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6호, 2003년 2월.
5. 김태영, 한국근대도시주택, 기문당, 2003.
6. 노길명,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빅셀출판사, 1988.
7. 부산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교구 30년사, 천주교 부산교구, 1990.
8. 손장원, 인천근대건축, 간향미디어랩, 2006.
9. 윤일주, 한국에서의 근대건축의 발전, 대한건축학회지 1986년 3월호.
10. 정예정·서치상, 1727년 초량왜관 수리의 일본 장인과 도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6권 5호.
11. 천주교 부산교구 동래교회, 동래본당 50년, 2004.
12. 천주교 부산교구 범일교회, 부산선교 90년사, 분도인쇄출판사, 1979.
13.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좌 중앙성당, 중앙성당 오십년사, 1999.
14. 천주교삼랑진교회, 삼랑진성당 60년사, 1990.
15. 최석우,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16.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 가톨릭 대사전, 1998.
17. 한국교회사연구소, 빛·믿음·흔적, 2004.

<표 1> 부산교구 주요 성당건축 양식과 전례공간의 변화경향 비교표

	한국성당건축의 일반적 경향		범일성당		삼랑진성당		밀양성당		중앙성당		동래성당		일반적 경향과의 차이
	건축양식	전례공간	건축양식	전례공간	건축양식	전례공간	건축양식	전례공간	건축양식	전례공간	건축양식	전례공간	
개화기 (1863-1910)	1.한옥성당 2.한양절충식 3.고딕식 벽돌성당	공간의 분절화 통일성 역동성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일본 의양풍 (목조+벽돌 조, 30평 Moyses Jozeau 신부 설계, 1893년 준공)	정방형 평면 단축방향 진입 종탑의 부리									1.예외적인 일본 의양풍 성당건축 (개항지, 전통적 일본 영향지의 지역성 반영) 2.단축방향 진입과 공간의 분절성 약함
일제 강점기 (1910-1945)	1.한·양 절충식 성당 2.서양식성당 3.강당형 서양식 성당	초기 전통적인 공간 후기는 강당형 단일 공간화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일·양절충식 (목조+벽돌조, 50평, René Peschel 신부 설계, 1916년 준공)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종탑을 제 외한 일체 형 공간 장축방향 진입	한옥 (영례성당, 목조, 60평, 권영조 신부 계획, 1928년 준공)	장방형 평면 단축방향 진입으로 공간의 분절성 약화 종탑부재	고딕식 성당 (벽돌 조, 100평, 류흥모 신부 계획, 1940년 준공)	강당형 공간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1.한옥성당(신앙촌, 자율신앙의 상징) 2.일·양 절충식 성당 등장 3.한옥과 일·양 절충식 성당은 장방형 평면에 단축방향 진입이 두드러짐
해방 후 내전과 복구기 (1945-1962)	1.양식(樣式) 변형의 양옥 성당 2.모더니즘 성당 3.절충식성당	단순한 강 당형 공간, 공간의 분 절성 약화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소규모화	르네상스식 (벽돌조, 130 평, Joseph Bulleau 신부 설계, 1935년 준공)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종탑을 제 외한 일체 형 공간	한옥 (목조, 유선 이 신부 계 획, 1957년 준공)	장방형 평면 단축방향 진입 일체형 공간 종탑부재		로마네스크 식 성당 (벽돌조, 500평, 장병 룡, 이종홍 신부 계획, 1956년 준공)	공간의 분절화 역동성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변형 고딕 식 성당 (목조, 70 평, 김충무 신부 계획, 1954년 준공)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종탑을 제 외한 일체형 공간		1.한옥성당의 지속 2.대규모, 전통 서 양식(해방 후 귀 국지, 6.25 피난 지의 지역성 반 영) 3.공간의 분절화 4.서양식 목조의 이질적 양식
현대 사회기 (1962-1990년대)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주의 성당 등 다양한 유형	외부형태와 무관한 공간 보편적 기능주의 공간 분절화, 역동성의 상실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의 평면	모더니즘 성당 (콘크리트조, 750평, Alwin Schmid 신부 설계, 1964년 준공)	부채꼴형 종탑을 제외한 일체형 공간	모더니즘 성당 (콘크리트조, 120평, 한영일 신부 주도, 1967년 준공)	부채꼴형 종탑을 제외한 일체형 공간	모더니즘 성당 (콘크리트 조, 369평, Alwin Schmid 신부 설계, 1964년 준공)	공간의 분절화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포스트 모더니즘 성당 (콘크리트 조, 1,100평, 건축사 반 미태 설계, 1973년 준공)	공간의 분절화 통일성 장방형 평면 장축방향 진입	모더니즘+ 표현주의 성당 (콘크리트 조, 김준필, 대상섭 신부 주도, 1968년 준공)	변형장방 형 평면 단축방향 진입 종탑을 제외한 일체형 공간	일반적 경향과 유사

[논문접수 : 2009. 06. 30]

[1차 심사 : 2009. 07. 16]

[2차 심사 : 2009. 09. 29]

[게재확정 : 2009. 10. 09]